

정치적 행위로서의 공동체 번역에 관한 시론적 연구: ‘사회 연결 모델’의 ‘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강지혜·김경혜·유한내
(아주대·상해교통대·전남대)

1. 서론

본 연구는 공동체 번역(community translation)에서의 ‘책임’ 문제를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을 적용하여 고찰하는 논문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참여문화가 확산되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온라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번역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종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경제적 보상 없이 지식의 생산·매개·유통·확산 과정에 참여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번역을 수행하는 이들의 행위를 ‘공동체 번역’이라 지칭하는데, 이러한 번역활동은 주로 공익을 위해 또는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의 필요 충족을 위해 촉발되기도 하고, 팬덤(fandom)이나 놀이, 재미의 차원에서 팬자막 제작 행위(fansubbing)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

양한 수준의 번역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번역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학자에 따라 ‘비전문번역(non-professional translation)’(김순미 2017; Pérez-González and Susam-Saraeva 2012)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번역 유형은, 테드(TED)·유튜브(YouTube)·위키피디아(Wikipedia) 등 각종 웹사이트에서 지식과 정보가 번역과정을 통해 폭발적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상황에서 많은 번역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단체(테드, 위키피디아 등)의 공동체 번역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체 번역에 관한 번역학계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공동체 번역의 순기능을 주목하는 연구이다. 이들은 공동체 번역이 전통적인 번역에 비해 무엇이 다른지,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조명하는지, 번역자들의 참여동기, 번역 절차와 역할분담, 번역을 통한 공익 향상 등을 탐구한다(예, 이상빈 2011; Baker 2010, 2013; Drugan 2011, 2017; McDonough Dolmaya 2017; Olohan 2014; Pérez-González 2010). 일례로 자원봉사자들의 번역활동 참여 동기(motive)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전문번역자와 달리 자원봉사번역자가 번역을 수행하는 이유는 ‘봉사 기관의 이념에 대한 공감’, ‘지식 전파’, ‘정보 공유’, ‘사회 변화 촉구’, ‘자기만족 및 보람 추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모색’, ‘지식 습득’, ‘즐거움과 유희’ 등이라고 설명한다(O’Brien and Shäler 2010; McDonough Dolmaya 2011, 2012; Olohan 2014). 로제타 재단(Rosetta Foundation), 위키피디아, 테드 등을 중심으로 참여동기를 분석한 이들 연구에 의하면, 기관의 이념 및 비전을 지지하고 번역을 통해 기관의 활동을 돕고자 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참여동기로 나타난다. 한편, 통번역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 및 정치 참여의 관점에서 조명한 베이커는 강대국과 거대 자본이 결정권을 가지는 선별적 지식의 통번역이 아닌 약자와 소수 언어를 위한 공동체 번역 활동을 강조한다(Baker 2010, 2013). 그 외에, 위키피디아 번역을 탐구한 맥도너프 돌마야는 번역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보네트워크 사회에서 다른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번역자의 시민성을 재구성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McDonough Dolmaya 2017).

한편, 공동체 번역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학자들도 있다(예, Hong 2017; Jiménez-Crespo 2011, 2013; McDonough Dolmaya 2011, 2012; O’Hagan

2011; Pérez-González 2012). 이들은 부실 번역, 전문번역가 집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번역시장의 왜곡, 번역 행위와 번역텍스트 사용의 잠재적 비윤리성(예, 번역된 지식의 비윤리적인 사용) 등을 지적한다. 공동체 번역이 과거에는 ‘비전문가 번역’으로 불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번역은 전문번역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번역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역 및 부실번역 논란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순미 2016: 7; Pérez-González and Susam-Sarajeva 2012). 번역은 높은 수준의 외국어 및 모국어 구사력·문화해독력·언어전환 및 텍스트 재구성 능력·배경지식 이해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번역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번역전문가를 쓰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번역을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번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번역시장의 왜곡과 번역 전문직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번역 품질에 문제가 없고 번역행위자들이 공익을 위해 또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번역을 수행했음지라도, 번역된 텍스트가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거나 비윤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즉 번역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번역텍스트가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으로 복제 및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공동체 번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반적인 번역전문가들과 달리 윤리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번역된 텍스트가 번역지적재산·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등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동체 번역의 역기능과 부정적 파급효과는 다양하다.

그러나 순기능과 역기능 중심의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거시적·구조적·정치적 관점에서 공동체 번역을 본다면, 이 번역은 전지구적 지식 생산 및 유통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웹 상에서 영어 콘텐츠의 비율이 전체 콘텐츠의 80%에 이른다는 점(Crystal 2012)을 고려해볼 때 영어는 웹 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영어 콘텐츠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연구자 별, 조사 기관 별로 발표된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¹⁾ 영어 편중 현상

1) 웹 상의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는 그 기준과 조사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

(그리고 소수의 주류 언어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웹 상에서 정보와 지식이 특정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각종 언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식의 다양성과 대중성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언어적 다양성은 언어의 ‘도구적(instrumental)’ 기능의 관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적(constitutive)’ 기능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즉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 표현이기도 하기에 웹 상에서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 개별적·집단적 개성 및 감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습득·생산·유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번역은 웹 상의 언어적 다양성 향상에 기여하는 행위이다. 특히 비주류 언어 및 소수 언어를 포함한 각종 언어로 번역지식이 생산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공유·확산되면서 지식의 선순환적 흐름을 형성하는 동시에 언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²⁾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폭증하는 정보 및 지식의 번역을 전문기관이나 기업만이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계번역은 아직 여러 가지 품질문제를 드러내고 있다(Fiederer and O'Brien 2009).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중심의 자원봉사번역자들은 외국어 능력을 지닌 ‘프로슈머(prosumer)’로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번역한 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테드·위키피디아와 같은 비영리단체 중심의 공동체 번역활동은 영어가 국제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

다. 우선 웹 상의 ‘언어사용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중국어가 1위, 스페인어가 2위를 차지한다(Crystal 2012). 크리스탈은 2012년에 출간한 개정증보판(Canto Classic Edition으로 출간)에서 콘텐츠의 ‘언어’를 기준으로 볼 때 영어 콘텐츠가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Web Technology Surveys에서 웹 정보의 언어별 구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어가 53.2%(그 뒤를 이어 러시아어 6.1%, 독일어 5.7%, 일본어 5%, 스페인어 4.8%, 프랑스어 4.1%, 포르투갈어 2.6%, 중국어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W3tech.com 2016).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는 크리스탈의 수치를 사용했다.

2) ‘언어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예, 공적 영역)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용납되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Wickström et al. 2018: 44)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웹 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지식을 생산·유통·사용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쓴다.

진 상황에서 언어 간의 권력 구조로 인한 정보 수용 및 지식 습득의 불균형과 함께 극복의 방안이 되는 동시에 웹 상의 다중언어주의 및 언어 평등 실현의 도구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체 번역에 관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하면서도,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정치적 행위’ 그리고 ‘책임’의 관점에서 공동체 번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책임’은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1949-2006)이 2006년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A social connection model’이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 제시한 ‘사회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을 중심으로 공동체 번역의 정치적 책임 문제를 살펴본다(Young 2006). 영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야기하는 요인이 사회적 구조라고 보고, 그 구조의 작동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구조의 문제(부정의)에 일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부정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책임의 근거가 행동과 결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구조적 부정의를 유발하는 제도와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공동체 번역은 위키피디아·테드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지식의 생산 및 전파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행하는 언어적 매개활동이다. 영리기업, 곧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플리토(Flitto) 등에서 번역공동체를 구성한 뒤 자원봉사자 회원을 모집하여 번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활동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리기업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기업 관련 웹 콘텐츠의 번역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 번역활동을 글로벌 사업 모델,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 많은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Kang and Hong in press; McDonough Dolmaya 2011). 본고는 비영리단체의 공동체 번역만을 다룰 것이며, 특히 공동체 번역이 왜 ‘책임’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지, 언어적 부정의(linguistic injustice)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책임의 내용과 속성은 무엇인지를 ‘사회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2. ‘사회 연결 모델’과 공동체 번역의 ‘책임’ 문제

2.1. 공동체 번역과 웹 상의 언어적 정의

공동체 번역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 즉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의 이용으로 가능해진 번역이다.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어떤 언어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위키피디아와 같이 사용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플랫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로 지식을 생산·유통·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키피디아의 경우 실제 운영에 있어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예를 들어 언어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 언어가 위키피디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ISO 639 등록 언어여야 하고, 사용자가 존재하는, 독자성이 있는 언어여야 한다. 언어 등록을 위한 신청이 있을 경우 토론, 확인, 최종승인 과정을 거쳐야 해당 언어로 페이지가 생성될 수 있다), 비주류 언어, 소수 언어로 작성된 정보와 지식이 얼마든지 게시될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함).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위키피디아는 ‘공식 다중언어주의(official multilingualism)’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McDonough Dolmaya 2017: 148). 위키피디아에서 직접 ‘공식 다중언어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키피디아의 번역 페이지(Wikipedia: Translation page)에서 “영어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 없는 사용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위키(MediaWiki) 인터페이스를 모든 관련 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Wikipedia 2016)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식 다중언어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맥도너프 돌마야는 설명한다. 위키피디아와 마찬가지로 테드도 여러 언어로 구성된 정보를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각종 언어가 공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테드 공식 웹사이트의 공동체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번역공동체는 “테드 연설을 여러분[번역자]의 언어권으로 가져오는(bring TED into your language)”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번역자는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가 언어와 경계를 자유롭게 가로질러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enable the inspiring ideas ... to crisscross languages and borders)” 사람이라고 설명한다.³⁾

3) <https://www.ted.com/participate/translate>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영어 편중 현상이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의 위치가 더 공고해지는 것이 어떻게 언어적 부정의로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예, May 2015; Politzer-Ahles et al. 2016).⁴⁾ 특히 ‘언어적 특혜(linguistic privilege)’의 관점에서 영어 편중 현상과 언어적 부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이 흥미롭다(Clavero 2010; Politzer-Ahles et al. 2016). 유통되는 지식이 주로 영어에 편중된 상황에서는 영어가 문화자본 및 상징자본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언어자본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지식을 더욱 신속하고 쉽게 습득,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반면 언어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지식에의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문화적·사회적으로 주변화되는 결과가 양산된다.

이러한 설명은 주로 학술 지식 생산과 출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비단 이들 분야에만 한정된 논의는 아니다. 웹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및 처리가 더욱 일반화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웹 상의 영어 편중 현상이 이러한 영어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지식 격차를 더욱 넓히고 있다. 결국 언어적 불평등이 지식의 불균형을,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의 제한, 지식 생산 및 유통의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영어 모국어 사용자는 노력(merit)이 아닌 우연히 특정 집단에 소속된 결과로 각종 혜택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어 독해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으며, 영어능력의 차이에 따라 피해 또는 차별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영어 능력 유무가 많은 영역에서의 정보 접근성·지식 창출 기회·사회적 혜택 등을 결

4) 다중언어주의가 언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언어철학과 언어정치학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국제어로서 영어(English as Lingua Franca)를 전지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언어적 정의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고(예, de Swaan 2001; Van Parijs 2011),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영어 모국어 화자들에 비해 특별히 언어적 부정의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특히 국제 학술 출판과 같은 상황에서) 언어적 부정의의 존재를 ‘잘못된 믿음(myth)’이라고 설명하는 시각(예, Hyland 2016)도 있다.

정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웹 상에서의 언어적 다양성은 오늘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각종 콘텐츠를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는 공동체 번역을 ‘사회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공동체 번역에 ‘책임’ 문제가 수반되는지,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2 사회 연결 모델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정의, 민주주의, 여성주의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야기하는 요인이 “사회구조적 과정(social-structural process)”(Young 2010: 107)이라고 보고, 사회 연결 모델을 통해 이런 구조의 작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여기서 ‘사회구조적 과정’이란 “다수의 개인이 종종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자신만의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행위들이 축적”되어, “종종 참여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120). 영은 주택 부족 현상을 예로 든다. 소비자, 투자자, 정부 관료, 임대업자 등은 모두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에 의존해 허용된 범주 안에서 행동하지만,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여기서는 주택 부족 및 노숙자 발생)가 발생하게 된다(122). 다시 말해 불평등과 부정의는 “사회구조적 과정 때문에 일부 사람이 겪게 되는 지배와 박탈”을 의미한다(122-123).

영은 어떤 상황이 ‘부정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의를 ‘인간이

5) 영의 저서 *Responsibility for Justice*는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번역서로 국내에 출간되었고(허라금, 김양희, 천수정 번역), 역자들은 ‘social connection model’을 ‘사회적 연결 모델’로 번역하였다. 영(2006: 102)은 ‘social connection model’을 정의하면서 “일부 구조적·사회적 과정은 정치적 경계와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한다(some structural social processes connect people across the world without regard to political boundaries)”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social connection’이 ‘한 사회 내에서의 연결’ 뿐만 아니라 ‘사회 간 연결’을 뜻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회적 연결’이 아닌 ‘사회 연결’로 번역하고, ‘social connection model’은 ‘사회 연결 모델’로 표기하였다.

초래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정의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171). 즉, '(책임에 관한) 사회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 of responsibility)'이란 "개인은 행위를 통해 부정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 부정의에 책임이 있다"(184-185)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책임'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행위자가 저야 하는 도덕적·법적 책임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은 책임 개념을 '법적 책임 모델(liability model)'과 '사회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전자는 인과적 책임을 뜻하며, 선형적 연결을 통해 죄가 있거나 비난받을 만한 행위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달리 후자는, 구조적 부정의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제와 관행에 따라 행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산 및 재생산되므로 특정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고 본다(172). 따라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을 캐내거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위의 결과를 덜 부정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적 과정을 변형시킬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다(173-174). 즉, 사회 연결 모델은 "구조적 부정의와 불평등을 생산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죄를 묻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y)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를 향해 실천해야 할 책임(responsibility)'을 부여"(김양희 2017: 19-20)한다.

2.3 사회 연결 모델과 법적 책임 모델의 차이

영은 사회 연결 모델을 법적 책임 모델(liability model)과 구분 짓는 특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격리하지 않기(Not isolating)'이다. 법적 책임 모델은 '법적 책임을 저야하는 사람들'을 '책임이 없는 사람들'과 분리시켜 잘못을 추궁하는 반면, 부정의를 만들어내는 제도에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적 부정의의 경우에는 격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Young 2010: 185-187). 구조적 부정의의 생산 및 재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부정의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하며, 부정의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제3자를 찾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면제되

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배경 조건 판단하기(Judging background conditions)’이다. 법적 책임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에서 명확하게 일탈’하는 경우를 ‘잘못’이나 ‘해악’으로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사회 연결 모델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가정하는 ‘배경 조건’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구조적 부정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경 조건 가운데 일부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Young 2010: 188).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More forward-looking than backward-looking)’이다. 법적 책임 모델에서 비난을 하거나 잘못을 묻는 행위의 주된 목적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범인이나 책임자를 확인하는 데 있다. 반면 사회 연결 모델은 미래지향적이다. 사회구조적 부정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색출한다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회구조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 부정의는 사회구조적 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연결 모델에서는 과거에 대한 보상보다는 부정의한 결과의 생산 과정에 일조한 모든 이들이 사회구조적 과정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190).

네 번째는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이다. 사회 연결 모델에서는 부정의를 생산하는 구조적 과정에 기여한 모든 이들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개개인은 자신이 부정의를 생산한 집단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구조적 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191).

다섯 번째는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면제(Discharged only through collective action)’되는 것이다. 사회 연결 모델 하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구조를 바꾸는 집단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도 사회구조적 과정을 혼자서 바꿀 수는 없다. 사회구조적 과정은 다양한 위치에 있는 많은 행위자들이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 개입하고 협력할 때에만 바뀔 수 있다. 심지어 구조적 부정의의 희생자들도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행동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책임이 있다(193-195).

3. 정치적 행위로서의 공동체 번역과 책임의 문제

영은 사회 연결 모델의 과제로 “권력을 소유한 일부 영향력 있는 행위자는 구조가 현상 유지되는 데서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조가 변화하는 데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247)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균열을 드러내는 데는 억압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과정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적으로 논의하고, 부정의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의한 구조에 무관심한 채로 현존하는 규칙을 단순히 따르거나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구조적 부정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249).

지식의 생산·확산·공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어 편중 현상은 구조적 과정에 의해 생긴 부정의이고, 공동체 번역은 구조적 과정을 폭로하고 부정의를 시정하는데 기여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번역은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데, 사회 연결 모델의 특징들, 즉 ‘격리하지 않기’와 ‘책임 공유’, ‘배경조건 판단하기’, ‘뒤를 돌아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면제’가 번역활동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격리하지 않기와 책임 공유⁶⁾

모든 영어 사용자나 비사용자들이 언어적 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영어 편중 현상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번역공동체의 구성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6) 영은 사회 연결 모델의 특징을 설명하며 ‘격리하지 않기’와 ‘책임의 공유’를 구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하여 논의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구조적 부정의의 생산 및 재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이들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다. 물론 공동체 번역 참여자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번역에 임하며, 모든 이가 책임의식으로 인해 번역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거시적·정치적 관점에서 번역공동체를 본다면, 개별적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 차원의 목표와 가치 공유가 있고, 따라서 그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번역은 정치적 책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언어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번역자들은 책임 공유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테드·위키피디아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번역을 통해 지식 확산 및 언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이는 언어 부정의를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세상에 퍼뜨릴 만한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 표어로 2006년에 설립된 테드는 오프라인 강연을 녹화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강연은 주로 영어로 이루어지고, 번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종 언어로 자막을 번역한다. 간혹 비영어권의 강연이 영어로 번역되는 등 번역봉사자들은 타 언어권의 강연을 본인의 목표문화권 언어로 번역하며 지식의 영어 편중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테드 번역에 참여한 이들은 “지식이 언어, 문화, 지리 등의 장벽을 넘어 퍼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help such knowledge reach new audiences regardless of language, cultural, geographical and other barriers)”⁷⁾ 번역에 참여했다고 밝힌다. 양질의 강연을 전 세계 누구나가 들을 수 있도록 번역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2001년에 출범한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내용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한 다중언어판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집단지성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용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위키피디아에 지식을 입력하기도 하지만, 다른 언어로 작성된 항목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플랫폼 자체에도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을 장려하는 페이지(Articles needing translation from foreign-language Wikipedias)’⁸⁾와 ‘다른 언어에서는 ‘알찬페이지’이지만 영어페이지는 없는 경우 모음(Featured articles in other languages)’⁹⁾을 운영하는 등

7) ‘Meet the TED Translators attending TED2018’ 중에서 Jae Yoon Kang (South Korea)의 말

8) https://en.wikipedia.org/wiki/Category:Articles_needing_translation_from_foreign-language_Wikipedias

9) 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Featured_articles_in_other_languages

다중언어주의 모델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적 부정의라는 현상과 책임 공유의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테드와 위키피디아의 공동체 번역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번역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이 언어적 부정의를 드러내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 웹 상에 게시되는 번역결과물은 언어 다양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언어적 부정의의 원인은 복잡한 역사적·정치경제적·문화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으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상징자본을 사용하여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부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언어 다양성 및 언어평등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3.2 배경조건 판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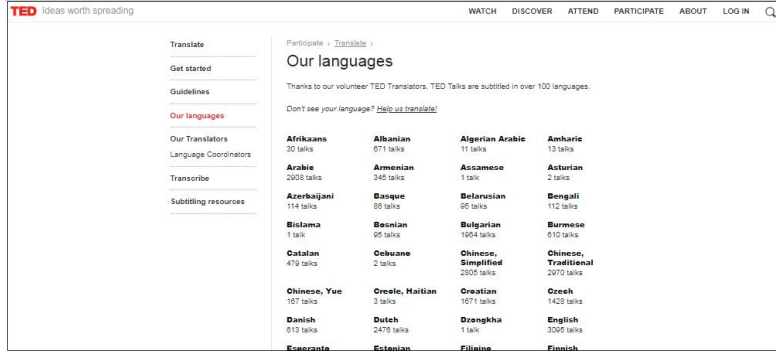
2.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 연결 모델에서는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배경조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어의 지식 편중이 초래하는 언어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사회구조적 과정에 의해 생산된 부정의라고 간주하게 되면, 다양한 번역공동체의 운영 및 그 존재 자체는 이러한 사회적 부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번역 공동체에서 번역자를 모집하고, 번역을 수행하고, 번역된 텍스트를 게시하고, 번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배경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테드는 영어에서 주변어로의 일방향적인 학술 지식 확산뿐만 아니라 언어 간의 다방향적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이 영어로 제작되지만, 영어 외에도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 제작된 영상도 공유되고 있다.¹⁰⁾ 일례로 한국어로 진행된 김영하 작가의 강연은 2019년 2월 현재까지 198만 뷰가 넘었고, 24개국 언어로 번

10) Suzanne Talhouk의 아랍어 강연 ‘Don’t kill your language’(https://www.ted.com/talks/suzanne_talhouk_don_t_kill_your_language)과 Gonzalo Vilarino의 ‘How Argentina’s blind soccer team became champions’ 스페인어 강연 (https://www.ted.com/talks/gonzalo_vilarino_how_argentina_s_blind_soccer_team_became_champions#-212319), 김영하의 ‘Be an artist, right now!’ 한국어 강연 (https://www.ted.com/talks/young_ha_kim_be_an_artist_right_now) 등.

역되었다. 테드의 경우 비영어권 언어로의 번역만이 아닌 특히 소수언어로의 번역을 장려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데, 테드 번역 참여 홈페이지¹¹⁾에는 <그림 1>과 같이 현재 이용 가능한 언어 목록과 함께 해당 문화권의 언어가 목록에 없는 경우 번역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림 1> 테드 번역 제공 언어 목록 페이지



위키피디아 역시 테드와 마찬가지로 다언어성 증진을 위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표준화기구에 코드가 등록된(ISO 639) 현존하는 언어로 독자적으로 사용되고(대부분의 경우 지역 방언이나 같은 언어의 상이한 표기 등은 제외되나 사례별로 따로 고려) 해당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충분히 있으나 아직 위키피디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언어도 위키피디아에 추가 언어 신청이 가능하며(일례로 현재 제주말 위키피디아의 공식 승격 전의 시험판인 인큐베이터 버전이 존재¹²⁾), 위원회의 회의와 확인,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해당 언어로의 페이지가 생성된다. ‘언어 신청 정책(Language proposal policy)’ 페이지는 위키피디아가 번역활동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 신청 정책 중 ‘최종 승인 요건(Requisites for final approval)’에 따르면, 시범 언어 페이지가 독립된 위키 언어판으로 설

11) <https://www.ted.com/participate/translate/our-languages>
 12) 제주말 위키피디아(https://incubator.wikimedia.org/wiki/Wp/jje/%EC%A0%9C%EC%A3%BC%EB%A7%90_%EC%9C%84%ED%82%A4%EB%B2%A1%EA%B3%BC)

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험판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그 누구도 영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참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번역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위키피디아의 항목 서술 페이지 (예: ‘Paris’ 항목 페이지) 원편 아래에는 선택 가능한 언어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선택 가능한 언어의 순은 알파벳으로 나열되어 있다. 다국어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들 대부분이 해당 문화권의 언어 외에는 영어판만을 제공하거나 영어 외 기타 언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언어 목록에서 영어를 가장 먼저 나열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¹³⁾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정보가 영어로 생산·유통·소비되고 영어로 가장 먼저 번역되는 영어 헤게모니 현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행위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도 ‘정상’으로 간주되었던 영어 우선 배열 관례 문제를 인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3.3 뒤를 돌아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

사회 연결 모델에서 부정의한 결과의 생산 과정에 일조한 모든 이들이 사회구조적 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처럼(Young 2013: 190), 공동체 번역은 언어적 부정의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번역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지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테드의 경우 다양한 번역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며 웹 상의 다중 언어주의 향상, 언어 평등 실현, 정보 수용 및 지식 습득의 불균형 한계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번역은 지식의 공유와 확산의 측면에서도 번역을 통한 일방향적 전달이나 지식의 재생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로 된 지식의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 배양, 재창출 되도록 하는 등 지식의 생산과 확산 방식 개선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13)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영어 헤게모니에 대한 의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번역 공동체의 예로는 베이커(2013)의 연구에 언급된 비영리 통번역자원봉사단체인 Babels의 홈페이지의 언어목록을 들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다양한 언어로 생산된 지식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언어 불평등 구조와 지식의 공유·확산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존스(Jones 2018)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위키피디아 내 ‘Paris’ 항목의 참고문헌 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해당 항목 작성자들은 ‘Paris’ 항목 작성 시 영어로 된 문서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이미 작성된 정보를 번역해 추가하기도 하고, 이미 영어로 작성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키피디아의 영어페이지 ‘Paris’ 항목은 오로지 영어로 된 정보·지식에만 기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타협과 번역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을 거친 새로운 결과물이다. 즉, 비록 작성 언어는 영어라 할지라도, 해당 항목의 지식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이해와 지식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언어로 생산된 지식인 것이다. 다양한 언어 페이지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다각적이고 유동성 있는 지식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키피디아 역시 언어 불평등으로 인한 지식의 편중 현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다양한 번역 공동체들은 사회 구조적 과정에 의해 생산된 부정의와 언어적 불평등의 원인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미래지향적 모델로서 이러한 문제를 양산하는 구조에 개입, 변화를 주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4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면제

구조적 불평등 해소는 개개인의 번역활동보다는 단체 또는 플랫폼을 통한 보다 큰 단위에서의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다.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번역은 지식의 편중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만, 개인이 번역할 수 있는 양은 매우 한정적이다. 무엇보다 언어 다양성 증진과 확대의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위키피디아나 테드 등과 다양한 지역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 공동체나 플랫폼 없이 이루어지는 개별 번역으로는 언어적 부정의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테드는 플랫폼을 통해 번역활동가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테드는 영상 번역시 반드시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번역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⁴⁾, 번역자는 테드의 번역봉사자 목록에서 공동번역/감수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번역활동을 진행하고 수정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나아가 테드에서 제공하는 다른 번역 관련 활동과 기능은 테드가 정확한 번역을 통해 정확한 지식 생산과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번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막 관련 튜토리얼 동영상을 제작·공유할 뿐만 아니라, 번역물은 반드시 리뷰 과정을 거치고 경력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인 테드 언어 코디네이터나 테드 직원이 최종적으로 번역 결과물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오역이나 근거 없는 누락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영상을 제공하는 메인 홈페이지 외에도 ‘테드 번역가모임 블로그’, ‘페이스북 테드 번역가 그룹’, ‘페이스북 언어 그룹’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번역활동가들이 테드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하도록 하는 한편, 오역이나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책임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번역품질 관리나 정확한 번역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지식 생산 및 확산에 있어 영어의 지배적인 사용을 상기시키는 한편 거시적·구조적·정치적 관점에서 공동체 번역이 웹 상에서의 언어적 다양성과 언어적 부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영이 제시한 ‘사회 연결 모델’에 기반하여 위키피디아·테드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공동체 번역이 왜 정치적 행위로서 ‘책임’ 문제를 수반하는지, 어떻게 언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공동체 번역에 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순기능, 역기능 관점에서 번역 (비)전문성·번역 품질·번역자의 개인적 동기 등을 다뤘다면, 본 연구는 공동체 번역이 왜 필요한지를 정치적 책임과 언

14) <https://www.ted.com/participate/translate/guidelines>

어적 부정의 문제 중심으로 고찰했다. 공동체 번역을 정치적 행위, 책임의 문제로 보는 논의가 아직 국내 번역학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본 연구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사회 연결 모델의 적용이라는 연구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 공동체 번역을 정치적 행위로 본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번역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원봉사자들의 공동체 번역활동 참여 동기는 다양하고, 특히 ‘재미’, ‘영어 습득 및 연습’, ‘보람’ 등이 참여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동기 차원을 넘어, 구조적·거시적·정치적 관점에서 공동체 번역이 수행하는 역할과 결과를 본다면, 공동체 번역활동에는 개인적 차원과는 다른 정치적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공동체 활동의 정치적, 윤리적 근거는 책임이다. 공동체 번역은 국가나 시장의 번역 수요 충족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평등·차별의 철폐 등 보편적 가치들을 옹호하고 확산하기 위해 책임을 실천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다. 따라서 경쟁 논리가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고 경쟁에서 배제된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 사회 영역의 활동으로 공동체 번역을 이해할 수도 있다. 번역을 통해 웹 상에서의 지식 접근성 및 언어적 다양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언어적 부정의가 개선된다는 것은, 공동체 번역이 국가, 시장과는 구별되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번역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 개발을 위해 공동체 번역 논리를 이용하거나 자원봉사들을 동원하는 영리적 기업들(예, 페이스북·트위터·플리토)의 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해야 하고 진지하게 비판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동체 번역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책임을 강조하는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지닌다. 첫째, ‘언어적 특혜’와 ‘언어적 부정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언어 간의 권력 구조로 인해 정보 수용 및 지식 습득의 불균형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언어적 부정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영은 어떤 상황이 ‘부정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을 ‘인간이 초래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정의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의에 대한

인식'은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언어적 부정의'라는 '균열'을 드러내어, 영어 위주로 지식이 생산·매개·유통·확산되는 사회구조를 당연시하거나, 이에 무관심한 채로 현존하는 규칙을 따르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언어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모두'가 노력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는 영어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체 번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 연결 모델은 불공정한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의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의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 위주의 정보 유통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영어 원어민뿐만 아니라, 언어적 부정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비원어민(영어능력을 갖춘) 또한 언어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의 공유와 사회 연결은 '공동체 번역'의 정치적·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해준다. 재미나 영어 연습을 위해 공동체 번역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도 자신의 번역행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공동체 번역이 언어적 정의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토대로 언어적 부정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체 번역의 정치적 책임 문제는, 번역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공동체와 번역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는 문제로 연결된다. 공동체 번역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개별적인 동기는 다양할 지라도 공동체 번역활동이 거시적, 집단적 차원에서 언어적 특혜와 부정의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공동체와 번역자들이 인지할 때, 번역활동이 유희나 외국어 연습을 위한 행위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번역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게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거시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은 번역지식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번역공동체의 부실 번역이나 번역된 정보의 비윤리적 삭제·변용·악용, 지식의 왜곡과 편향,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공동체 번역행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성찰은, 번역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 더욱 책임있는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동체 번역이 전문 번역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자원봉사자에 기반한 공동체 번역 모델을 채택하는 영리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전문번역자 대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기업의 번역 수요를 충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Drugan 2017; McDonough Dolmaya 2011). 이는, 번역자원봉사자와 전문번역가 간의 활동 영역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이 무보수로도 행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AI 기반 기계번역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전문번역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번역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번역자들에게 또 다른 위기의식을 야기하고 있다 (McDonough Dolmaya 2011). 이는 또한 전문번역가들이 공동체 번역을 주로 부정적, 비판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 번역이 언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동체 번역과 전문 번역 간의 긴장 관계는 해소되어야 한다. 우선 영리적 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체 번역 모델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하고, 비영리재단일 지라도 플랫폼 관리를 위한 엔지니어들은 고용하듯이 번역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번역가들은 고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동체 번역의 확산이 전문번역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번역학계 내에서 언어적 정의에 관한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식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지식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번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어로서의 영어 사용이 특정 맥락에서 경제성, 유용성, 효율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공동체 번역이 수반하는 여러 잠재적 문제들(전문성 부재·번역품질 저하·전문번역가 집단에 미치는 피해)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통번역 활동이 지식의 불균형, 언어권력구조, 언어적 부정의 해소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연결 모델에 기반해 공동체 번역의 정치적 책임을 논의한 본 연구를 토대로, 언어적 정의와 통번역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16) 「디지털 시대 비전문가들의 참여 번역 현상」, 『번역학연구』 17(3): 7-32.
- 김순미 (2017) 「온라인 커뮤니티 크라우드소싱 번역」, 『번역학연구』 18(2): 67-96.
- 김양희 (2017) 「여성주의 개발담론으로서 영(Young)의 ‘사회적 연결 모델’의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27: 1-30.
- 이상빈 (2011) 「팬 번역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4): 119-143.
- Baker, Mona (2010) ‘Translation and Activism: Emerging Patterns of Narrative Community’, *The Massachusetts Review* 47(III): 462-484.
- Baker, Mona (2013) ‘Translation as an Alternative Space for Political Action’, *Social Movement Studies* 12(1): 23-47.
- Clavero, Miguel (2010) “‘Awkward Wording. Rephrase’”: Linguistic Injustice in Ecological Journals’,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5(10): 552-553.
- Crystal, David (2012)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Swaan, Abram (2001) *Words of the World: The Global Language System*. Cambridge: Polity Press.
- Drugan, Joanna (2011) ‘Translation Ethics Wikified: How Far Do Professional Codes of Ethics and Practice Apply to Non-professionally Produced Translation?’, *Linguistica Antverpiensia* 10: 111-127.
- Drugan, Joanna (2017)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gaging with and beyond the Professions’, *The Translator* 23(2): 126-142.
- Fiederer, Rebecca, and Sharon O’Brien (2009) ‘Quality and Machine Translation: A Realistic Objective’,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1: 52-74.
- Hong, Jungmin (2017) ‘Double Whammy for Professional News Translators in

- the Digital Ag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121-147.
- Hyland, Ken (2016) 'Academic Publishing and the Myth of Linguistic Injustic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1: 58 - 69.
- Jiménez-Crespo, Miguel A. (2011) 'From Many One: Novel Approaches to Translation Quality in a Social Network Era',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10.
- Jiménez-Crespo, Miguel A. (2013) *Translation and Web Loc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Jones, Henry (2018) 'Wikipedia, Translation and the Collaborative Production of Spatial Knowledge(s): A Socio-narrative Analysis', *Alif: Journal of Comparative Poetics* 38: 264-297.
- Kang, Ji-Hae and Jung-Wook Hong (in preparation). 'Volunteer Translators as "Committed Individuals" or "Providers of Free Labor"?: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Volunteer Translators" in a Commercial Online Learning Platform Translation Controversy', *META. Special Issue on New Contexts in Translation & Interpretation-Oriented Discourse Analysis* 65(1).
- May, Stephen (2015) 'The Problem with English(es) and Linguistic (In)justice. Addressing the Limits of Liberal Egalitarian Accounts of Language',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8(2): 131-148.
- McDonough Dolmaya, Julie (2011) 'The Ethics of Crowdsourcing', *Linguistica Antverpiensia* 10: 97-111.
- McDonough Dolmaya, Julie (2012) 'Analyzing the Crowdsourcing Model and Its Impact on Public Perceptions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 18(2): 167-191.
- McDonough Dolmaya, Julie (2017) 'Expanding the Sum of All Human Knowledge: Wikipedia, Translation and Linguistic Justice', *The Translator* 23(2): 143-157.
- O'Brien, Sharon, and Reinhard Schäler (2010) 'Next Generation Translation and Localization: Users Are Taking Charge'. Paper presented at

Translating and the Computer 32. Available at: http://doras.dcu.ie/16695/1/Paper_6.pdf.

- O'Hagan, Minako (2011) 'Community Translation: Translation as a Social Activity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in the Advent of Web 2.0 and Beyond', *Linguistica Antverpiensia* 10: 11-23.
- Olohan, Maeve (2014) 'Why Do You Translate? Motivation to Volunteer and TED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7(1): 17-33.
- Pérez-González, Luis (2010) 'Ad-hocracies of Translation Activism in the Blogosphere: a Genealogical Case Study', in Mona Baker, Maeve Olohan and María Calzada Pérez (eds) *Text and Context: Essays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Honour of Ian Mas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59-287.
- Pérez-González, Luis (2012) 'Amateur Subtitling and the Pragmatics of Spectatorial Subjectivity',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2(4): 335-352.
- Pérez-González, Luis, and Şebnem Susam-Saraeva (2012) 'Non-professional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articipatory and Engaged Perspectives,' *The Translator* 18(2): 149-165.
- Politzer-Ahles, Stephen, et al. (2016) 'Is Linguistic Injustice a Myth? A Response to Hyland (2016)',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4: 3-8.
- Young, Iris Marion (2006)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A Social Connection Model',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3(1): 102-130.
- Young, Iris Marion (2010)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허라균·김양희 옮김,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이후, 2013].
- Van Parijs, Philippe (2011) *Linguistic Justice for Europe and for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ckström, Bengt-Arne, Torsten Templin and Michele Gazzola (2018) 'An Economics Approach to Language Policy and Linguistic Justice', in Michele Gazzola, Torsten Templin, and Bengt-Arne Wickström (eds) *Language Policy and Linguistic Justice*, Cham: Springer, 3-64.

[인터넷 자료]

Wikipedia (2016) Available at: www.wikipedia.org.

W3Tech.com (2016) Available at: https://w3techs.com/technologies/overview/content_language/all.

[Abstract]

**Political Responsibility in Community Translation:
Based on the ‘Social Connection Model’**

Kang, Ji-Hae · Kim, Kyung Hye · Yu, Han-Nae

(Ajou University ·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he practice of community tran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Young 2006). According to Young, all agents connected to global structural injustice bear political responsibility, which is shared, non-blameworthy, and forward-looking. By extension, political responsibility must be taken up collectively by all participants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change. Political responsibility is a crucial notion to account for the collective actions of volunteers translating in the context of non-profit organizations committed to linguistic diversity and multilingualism. We argue that when volunteer translators’ activities are embedded in communities dedicated to promoting linguistic justice or intervening in the unequal distribution of knowledge, translation is an ac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study underlines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translation and politics of responsibility.

▶ **Keywords:** community translation, social connection model, responsibility, knowled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linguistic (in)justice

▶ **주제어:** 공동체 번역, 사회 연결 모델, 책임, 지식의 생산과 확산, 언어적 (부)정의

강지혜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번역, 학술지식 번역, 번역과 디지털미디어, 번역학연구방법론

김경혜

상해교통대 외국어대학 번역학전공 조교수

kyunghye.kim@sjtu.edu.cn

관심분야: 코퍼스 번역학, 비평적 담화분석, 재번역, 개념어 번역

유한내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영어학과 조교수

ambrosia14@gmail.com

관심분야: 번역비평, 번역철학, 번역자의 지위와 역할

논문투고일: 2019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5월 28일